

From: ilchough
Sent: January 16, 2012

Subject: 제목없음 - [Hong Kyung-Rae vs. Martin Luther King Jr.](#)

<洪 景來(1780-1812) 와 Martin Luther King Jr (1929-1968) >

" " 그 사는 땅에 따라 차별받지 아니하고
그 어버이의 높고 낮음에 따라 차별받지 아니하고
그 하는바 생업에 따라 차별받지 아니하고
그 가진바 많고 적음에 따라 차별받지 아니하는
세상을 우리는 꿈 꾸었던 것이네"
-- 洪 景來의 主張 --

" " 나에게 꿈이 있다.
나의 어린 내 아들 딸들이 어느 날엔가 살결에 의하지 않고 인격에 의해 평가
받는 나라에 살게 되는 그런 꿈을---.
나에겐 꿈이 있다.
어느 날엔가 조지아의 붉은 언덕에 노예와 노예주인 자손들이 형제애의 테이블 에 함께 앉는
그런 꿈을---.
나에겐 꿈이 있다
어느 날엔가 모든 골짜기기가 매워지고 모든 언덕과 산이 낮아지고 모든 거친들
이 평지가 되고 모든 굽은 곳이 펴지는 그런 꿈을---."
-- 마틴 루터 킹 2 세의 꿈--

時間과 空間을 초월한 두 선각자의 사상은 독대를 하면서 똑 같은 생각과 理想을 다른
표현방식으로 대화하고 있는 것과 같은 착각을 할 정도로 분별하기가 어려운 표현이다.
투쟁방식과 時代的인 背景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끝까지 不平等에서 오는 인간의 삶을 바르게
고쳐 불러는 위대한 선각자들의 행동은 오늘도
우리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다.